

2024
고2 문학
미래엔

2024 고2 문학 미래엔 | 5(1)(2) 김 씨 표류기 내신형 기출 문제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직전 보강 유형

<김 씨 표류기>의 부분 및 전체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. 작품 전체의 내용을 묻거나, 기호를 활용해 특정 부분의 내용을 묻는 유형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. 작품의 주제를 중심으로 부분 및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[1~5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[앞부분 줄거리]

빛 독촉에 시달리던 남자 김 씨는 한강에서 자살하려다 우연히 살아남아 무인도인 ㉠밤섬에서 깨어난다. 밤섬에서 탈출하려던 남자는 버려진 오리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. 어느 날 쓰레기 속에서 짜장 라면 양념 가루를 발견한 남자 김 씨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져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.

한편 여자 김 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㉡방에만 틀어박혀 지낸다.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방 안에서 사진 찍기인데, 우연히 밤섬 쪽을 찍다가 남자 김 씨를 발견한다. 그 후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. 오랜 관찰로 남자의 사정을 알게 된 여자 김 씨는 ㉢남자 김 씨에게 짜장면을 배달시켜 보낸다.

S# 83 방(오후)

㉠여자의 망원 렌즈 시점.

짜장면을 들고 배달원 앞까지 걸어오는 남자. 짜장면을 내려놓는다. 배달원에게 ‘뭐라 뭐라’ 하는 남자. 그러고는 돌아서 가 버린다. 황당한 배달원.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을 도로 철가방에 담는다.

카메라에서 눈을 떼는 여자. 놀라는 표정.

S#84 한강 한복판(오후)

화를 내며 오리배의 페달을 돌리고 있는 배달원.

배달원: (잔뜩 짜증 난 목소리로) 내가 진짜……
아우, 진짜…….

S#85 현관(오후)

딩동! ding동! ding동! 짜증 날 대로 난 배달원. 대답이 없자 현관 앞에 급기야 무작정 짜장면을 내려놓는다.

배달원: 아, 몰라, 몰라, 몰라! 직접 전해주든지, 먹든지, 버리든지……. (울먹이며) 다리에 알 배었거든요!

배달원이 씩씩대며 돌아서 가는데, 철컹. 걸쇠에 걸린 현관문이 살짝 열린다.

여자: 저기요!

배달원, 극도의 짜증을 억지로 삼키며 천천히 돌아서는데, 여자가 안 보인다. 배달원, 천천히 현관을 향해 걸어가면 문 안쪽, 좁은 문틈으로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러나는, 애써 얼굴을 돌리고 서 있는 긴 흑발의 여자. 놀라서 멈칫하며 주춤대는 배달원.

배달원: 왜들, 그러세요……. 들…….

여자: 그 남자……. 다른 말 없었어요? 뭐라고 하는 거 같던데…… 그죠? 뭐라고 그랬어요?

㉢여자는 잠깐잠깐 배달원과 눈을 마주치지만 애써 시선을 피한다.

배달원: (잠시 본다.) 참, 두 분…… 서로 참, 관심 있으신가 봐요……. 막 애툷할라 그러네?

여자: …….

배달원: 전해 달래요.

여자: (동그랗게 떠지는 두 눈)

배달원: ©(갑자기 정색하며) 자기한테 짜장면은……. 희망이래요.

여자: (듣는 표정)…….

배달원: (정색한 표정 그대로) 그 남자, 가까이하지 마세요. 그릇은…… 가지시고.

배달원은 돌아서 간다. 이미 붙어 터진, 남겨진 ㉔ 짜장면들을 바라보는 여자의 표정.

[종락 부분 줄거리]

남자는 여자가 보낸 짜장면을 돌려보낸 뒤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. 결국 직접 기른 옥수수와 채소로 짜장면을 만든다.

S# 97 짜장면을 만들다(오후)

오리배 앞. 말린 옥수수의 알을 하나하나 떼어 내는 남자. 냄비에 담긴 노란 옥수수 알. 여자가 보내온 와인병으로 힘차게 옥수수 알을 뺏는 남자. 이제는 가루가 된 옥수수에 적당량의 물을 붓는다. 다시 한번 와인병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반죽한다. 반죽한 덩어리는 강통 뚜껑으로 얇게 잘라 낸다. 모닥불 위에 끓고 있는 물. 잘라 낸 면을 넣고 나뭇가지로 천천히 젓는 남자. 모래 깊숙이 파묻은 뭔가를 꺼낸다. 보면, 포장도 뜯지 않은 단무지다. 오리배 안. 오랫동안 곱게 보관한 짜장 라면 양념 가루를 꺼내는 남자.

S# 98 짜장면 완성(오후)

모래사장.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을 그릇에 담은 남자. 양념 가루를 들어 조심스럽게 짬는다. 짬는 손길이 가볍게 떨린다. 툭 툭 툭 양념 가루의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털어 낸다. 잘 익은 노란 면 위에 뿌려지는 검은 양념 가루. 나무젓가락을 꺼내 쓱 쓱 면과 양념 가루를 비비는 남자. 금세 시커멓게 변하는 면발. 마침내 어느 정도 비벼진 면을 잠시 바라보는 남자. 남자의 표정은 설명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하다. 작게 벌린 입에서 흘러나오는 남자의 호흡이 가

늘게 떨린다. 드디어 완성된 남자만의 짜장면을 한 젓가락 들어 입으로 가져간다. 후루룩 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면발. 우걱우걱 씹는 남자의 감정이 어느 순간 북받친다. 감정을 누르고 다시 한 젓가락을 입 속에 넣는다. 우걱우걱 씹을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는 눈시울. 다시 북받치는 감정. 어느새 뚝뚝 떨어지는 굵은 눈물. 남자, 입가가 시커멓게 되도록 짜장면을 옥여넣어 보지만, 북받치는 감정을 참을 길 없다. 애써 웃어 보려 하는데 자꾸만 ㉔ 눈물이 흐른다. 이제껏 흘려 본 적 없는 눈물. 말하자면 그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 같은 눈물이다. 그렇게 입 안 가득 ㉔ 짜장면을 물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남자.

S# 99 방 (오후)

여자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나지막히 말한다.

여자: (미소를 지으며) 콩그래츨레이션스…… .

남자의 사진들로 도배된 벽면. 방금 인쇄한 남자의 사진을 붙이는 여자. 보면, 짜장면을 한가득 입에 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자의 얼굴. 바라보는 여자의 눈가도 투명하게 촉촉하다. 천천히 손을 뺀어 사진 속 남자의 눈물을 쓱 닦아 주는 여자. 여자의 눈에서 한 줄 눈물이 흐른다.

S# 100 불박이장 안(밤)

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는 여자. 몸이 갑자기 커졌을 리도 없는데. ㉔ 오늘따라 관같이 비좁게 느껴지는 불박이장.

S# 101 방 안(밤)

달빛이 드리운 한밤의 방 안. 드르륵 조용히 미닫이문을 열고 나오는 여자. 방 한복판 맨발로 선 여자. 쓰레기들을 한쪽으로 대충 밀치고 자리를 잡고는 천천히 몸을 눕힌다. 부드럽게 하늘거리는 커튼. 창가를 바라보던 여자. 시선이 어느새 평온하게 감긴다.

S# 102 오리배 안(오후)

그동안 받은 와인병들이 줄지어 서 있는 오리배 안. 여자의 편지, 'CONGRATULATIONS'를 보고 있는 남자. 바라보는 남자의 평온한 시선. 비록 짧은 단어지만 많은 감정을 읽을 수 있다. 한동안 보던 남

자, 무슨 생각에선지 오리배 안 구석,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곳에서 뭔가를 찾는다. 남자가 집어 드는 건 다름 아닌 휴대 전화. 목소리를 가다듬어 보는 남자. 폴더를 열고 잠시 후.

남자: 헬로?……. 하우 아 유?……. 파인 생큐, 앤 유? 파인 생큐! 음 …… 웨얼 아 유 프롬?……. 코리안? 리얼리? 오 마이 갓! 미투! 미투! 아임 코리안! 프롬 도봉구……. 예…… 아 …… 앤드, 아 …….

할 얘기가 없다. 아니다, 하고 싶은 얘기는 애초 하나뿐이었다. 서서히 진지해지는 남자의 표정.

남자: 아이…… 아이…… 흠 투 씨 유 …… 후 아 유?

[뒷부분 줄거리]

태풍 때문에 남자가 일군 텃밭과 숙소가 모두 엉망이 되고, 남자는 환경 관리원에게 끌려 나온다. 자신이 도망쳤던 사회에 억지로 돌아온 남자는 진정으로 죽고자 마음먹고 고층 빌딩으로 향한다. 카메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자는 몇 년 만에 대낮의 거리로 뛰쳐나와 남자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어 다닌다. 그녀는 버스에 탄 남자를 발견하고 열심히 뛰어가지만 아무래도 역부족이다. 때마침 민방위 사이렌이 울려 버스가 멈추고 여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가 버스 안의 남자와 마주한다.

- 「김 씨 표류기」

1. ㉠~㉥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여자 김 씨가 남자 김 씨를 관찰하는 수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로이기도 하다.
- ② ㉡: 짜장면을 다시 가져온 배달원에 대한 호의와 감사함이 뒤섞인 여자 김 씨의 마음이 드러난다.
- ③ ㉢: 여자 김 씨가 짜장면에 대한 남자 김 씨의 의지를 알게 되는 부분으로 두 남녀의 소통을 도와주는 배달원의 역할이 드러난다.
- ④ ㉣: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드디어 짜장면을 먹게 된 남자 김 씨가 삶의 희망과 보람을 느끼고 감격하는 부분이다.
- ⑤ ㉤: 단절되고 고립된 삶을 답답해하기 시작하는 여자 김 씨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.

2.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여자 김 씨가 남자 김 씨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짜장면을 주문하였다.
- ② 배달원은 짜장면 배달을 위해 오리배를 활용하여 밤섬까지 왕복한다.
- ③ 여자 김 씨는 카메라를 통해 남자 김 씨가 배달된 짜장면을 먹는 장면을 관찰하고 있다.
- ④ 남자 김 씨는 직접 기른 옥수수와 채소로 짜장면을 만들어 먹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.
- ⑤ ‘민방위 사이렌’ 덕분에 남자 김 씨와 여자 김 씨가 버스에서 만나게 된다.

3.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?

- ① 남자는 배달원에게 짜장면을 보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‘뭐라 뭐라’라고 말한다.
- ② 배달원이 여자 김 씨에게 짜장면 그릇을 가지라고 한 것은 그릇을 가지러 오기 힘들기 때문이다.
- ③ 빗 독촉에 시달리던 남자 김 씨는 짜장면을 완성한 뒤 삶에 대한 의지를 회복하고 섬을 떠나려 한다.
- ④ 여자가 남자 김 씨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된 것은 서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이다.
- ⑤ 여자의 편지, ‘CONGRATULATION’을 보던 남자 김 씨는 여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소통을 시도한다.

4. ㉦~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㉦: 도시의 한복판이지만 무인도이고 남자 김 씨가 고립된 공간이다.
- ② ㉧: 여자 김 씨가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남자 김 씨를 관찰하는 장소이다.
- ③ ㉨: 혼한 성씨로 부르는 것은 독자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이다.
- ④ ㉩: 남자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람을 느끼게 하는 삶의 목표이다.
- ⑤ ㉪: 자신의 노력으로 완성한 결과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다.

5. <보기>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‘표류’의 사전적 의미는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간다는 의미 외에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잃고 헤매. 또는 일정한 원칙이나 주관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것이다.

- ① 한강에 표류한 남자 김 씨가 삶의 의지를 갖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임을 암시한다.
- ② 익명의 현대인이 처한 현실을 밤섬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남자 김 씨의 모습으로 드러낸다.
- ③ 특정한 공간에 갇혀서 타인을 경계하면서도 서로를 궁금해하는 현대인의 내면을 드러낸다.
- ④ 삶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한다.
- ⑤ 목적이나 방향을 가진 인물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.

신유형

<김 씨 표류기>의 전체 및 부분의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, 장면별 연출 계획에 대해 묻는 문제,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해 묻는 문제, 표현상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. 또한 학습활동에 제시된 <우리 동네 구자명 씨>의 표현상 특징과 시어 및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, <김 씨 표류기>와 <우리 동네 구자명 씨>를 모두 꼼꼼하게 공부해야 합니다. 작품의 내용 및 표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[6~9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[앞부분 줄거리]

빛 독촉에 시달리던 남자 김 씨는 한강에서 자살하려다 우연히 살아남아 무인도인 밤섬에서 깨어난다. 밤섬에서 탈출하려던 남자는 버려진 오리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. 어느 날 쓰레기 속에서 짜장 라면 양념 가루를 발견한 남자 김 씨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져 농사를

짓기 시작한다.

한편 여자 김 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낸다.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방 안에서 사진 찍기인데, 우연히 밤섬 쪽을 찍다가 남자 김 씨를 발견한다. 그 후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. 오랜 관찰로 남자의 사정을 알게 된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에게 짜장면을 배달시켜 보낸다.

S# 82 섬(오후)

경계하듯 섬을 두리번거리며 모래 해변 위를 걷는 배달원. 저 앞에 남자의 오리배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간다.

배달원: 저기요? 계세요?

카메라가 배달원의 시선으로 오리배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간다. 이윽고 오리배 뒤에 잔뜩 몸을 숨긴 웅크린 남자의 앙상한 뒷모습이 드러난다. 긴장하는 배달원.

배달원: 짜장면…… 시키신 분?

남자, 조심스럽게 돌아본다. 남자의 행색에 흠칫 놀라는 배달원. 남자도 난데없는 배달원의 등장엔 놀라긴 마찬가지이다. 잠시 서로에게 당황하는 두 사람. 배달원, 머뭇머뭇 조심스럽게 입을 떼는데, 말도 잘 안 나온다.

배달원: 아니…… 어떤 여자가…… 여기로 짜장면…….

배달원, 주뺏대다가 철가방을 내려놓는다. 그 바람에 흠칫하는 남자.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는다. 배달원, 남자의 눈치를 살피며 철가방 속에서 조심스럽게 짜장면을 꺼내 놓는다.

배달원: 보통 짜장…….

배달원, 이번엔 다른 짜장면을 내려놓는다.

배달원: 간짜장…….

배달원,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을 웬지 해야

할 것 같은 또 하나의 짜장면을 내놓으며

철가방: 삼선 짜장……. 그리고…… (군만두다.) 서비스…….

짜장면들을 바라보는 남자의 표정. 그런 남자의 표정을 잠시 살피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배달원. 다시 껌을 씹으며 통명스럽게 말한다.

배달원: 그…… 사실 그래요. 배달이 어디든 가는 게 원칙이긴 한데……. 너무들 하셨다, 이번 일은.

남자: …….

배달원: 식사 많이 하시고요, 그릇은……. (남자의 주변을 훑더니) 가지세요…….

남자: 저기요! 여자…… 어떤, 여자예요? 어떻게 생겼는데요?

배달원: (한숨을 쉬며) 저도 상당히 보고 싶거든요?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잔지?

배달원, 돌아서 간다. 남자,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짜장면들을 바라본다. 남자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린다. 점점 복잡해지는 감정인가 싶은데 갑자기.

남자: 저기요!

S#83 방(오후)

여자의 망원 렌즈 시점.

짜장면을 들고 배달원 앞까지 걸어오는 남자. 짜장면을 내려놓는다. 배달원에게 ‘뭐라 뭐라’ 하는 남자. 그러고는 돌아서 가 버린다. 황당한 배달원.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을 도로 철가방에 담는다.

카메라에서 눈을 떴는 여자. 놀라는 표정.

S#84 한강 한복판(오후)

화를 내며 오리배의 페달을 돌리고 있는 배달원.

㉠배달원: (잔뜩 짜증 난 목소리로) 내가 진짜…… 아유, 진짜…….

S#85 현관(오후)

딩동! Ding동! Ding동! 짜증 날 대로 난 배달원. 대답이 없자 현관 앞에 급기야 무작정 ㉡짜장면을 내려놓는다.

배달원: 아, 몰라, 몰라, 몰라! 직접 전해주든지, 먹든지, 버리든지……. (울먹이며) 다리에 알 배었거든요!

배달원이 씩씩대며 돌아서 가는데, 철컹. 걸쇠에 걸린 현관문이 살짝 열린다.

여자: 저기요!

배달원, 극도의 짜증을 억지로 삼키며 천천히 돌아서는데, 여자가 안 보인다. 배달원, 천천히 현관을 향해 걸어가면 문 안쪽, 좁은 문틈으로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러나는, 애써 얼굴을 돌리고 서 있는 긴 흑발의 여자. 놀라서 멈칫하며 주춤대는 배달원.

배달원: 왜들, 그러세요……. 들…….

여자: 그 남자……. 다른 말 없었어요? 뭐라고 하는 거 같던데…… 그죠? 뭐라고 그랬어요?

여자는 잠깐잠깐 배달원과 눈을 마주치지만 애써 시선을 피한다.

배달원: (잠시 본다.) 참, 두 분…… 서로 참, 관심 있으신가 봐요……. 막 애툷할라 그러네?

여자: …….

배달원: 전해 달래요.

여자: (동그랗게 떠지는 두 눈)

배달원: (갑자기 정색하며) 자기한테 짜장면은……. 희망이래요.

여자: (듣는 표정)…….

배달원: (정색한 표정 그대로) 그 남자, 가까이하지 마세요. 그릇은…… 가지시고.

배달원은 돌아서 간다. 이미 붙어 터진, 남겨진 짜장면들을 바라보는 여자의 표정.

[중략 부분 줄거리]

남자는 여자가 보낸 짜장면을 돌려보낸 뒤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. 결국 직접 기른 옥수수와 채소로 짜장면을 만든다.

S# 97 짜장면을 만들다(오후)

오리배 앞. 말린 옥수수의 알을 하나하나 떼어 내는 남자. 냄비에 담긴 노란 옥수수 알. 여자가 보내온 와인병으로 힘차게 옥수수 알을 뺑는 남자. 이제는 가루가 된 옥수수에 적당량의 물을 붓는다. 다시 한번 와인병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반죽한다. 반죽한 덩어리는 강통 뚜껑으로 얇게 잘라 낸다. 모닥불 위에 끓고 있는 물. 잘라 낸 면을 넣고 나뭇가지로 천천히 젓는 남자. 모래 깊숙이 파묻은 뭔가를 꺼낸다. 보면, 포장도 뜯지 않은 단무지다. 오리배 안. 오랫동안 곱게 보관한 짜장 라면 양념 가루를 꺼내는 남자.

S# 98 짜장면 완성(오후)

모래사장.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을 그릇에 담은 남자. 양념 가루를 들어 조심스럽게 찻는다. 찻는 손길이 가볍게 떨린다. 툭 툭 툭 양념 가루의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털어 낸다. 잘 익은 노란 면 위에 뿌려지는 검은 양념 가루. 나무젓가락을 꺼내 쓱 쓱 면과 양념 가루를 비비는 남자. 금세 시커멓게 변하는 면발. 마침내 어느 정도 비벼진 면을 잠시 바라보는 남자. 남자의 표정은 설명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하다. 작게 벌린 입에서 흘러나오는 남자의 호흡이 가늘게 떨린다. 드디어 완성된 남자만의 짜장면을 한 젓가락 들어 입으로 가져간다. 후루룩 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면발. 우걱우걱 씹는 남자의 감정이 어느 순간 북받친다. 감정을 누르고 다시 한 젓가락을 입 속에 넣는다. 우걱우걱 씹을수록 점점 더 뜨거워지는 눈시울. 다시 북받치는 감정. 어느새 뚝뚝 떨어지는 굵은 눈물. 남자, 입가가 시커멓게 되도록 짜장면을 옥여넣어 보지만, 북받치는 감정을 참을 길 없다. 애써 웃어 보려 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흐른다. 이제껏 흘러 본 적 없는 눈물. 말하자면 그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 같은 눈물이다. 그렇게 입 안 가득 짜장면을 물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남자.

S# 99 방 (오후)

여자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나지막히 말한다.

여자: (미소를 지으며) 콩그래츰레이션스…… .

남자의 사진들로 도배된 벽면. 방금 인쇄한 남자의 사진을 붙이는 여자. 보면, 짜장면을 한가득 입에 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자의 얼굴. 바라보는 여자의 눈가도 투명하게 촉촉하다. 천천히 손을 뺀어 사진 속 남자의 눈물을 쓱 닦아 주는 여자. 여자의 눈에서 한 줄 눈물이 흐른다.

S# 100 불박이장 안(밤)

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는 여자. 몸이 갑자기 커졌을 리도 없는데, 오늘따라 관갈이 비좁게 느껴지는 불박이장.

S# 101 @방 안(밤)

달빛이 드리운 한밤의 방 안. 드르륵 조용히 미닫이문을 열고 나오는 여자. 방 한복판 맨발로 선 여자. 쓰레기들을 한쪽으로 대충 밀치고 자리를 잡고는 천천히 몸을 눕힌다. 부드럽게 하늘거리는 커튼. 창가를 바라보던 여자. 시선이 어느새 평온하게 감긴다.

S# 102 오리배 안(오후)

그동안 받은 @와인병들이 줄지어 서 있는 오리배 안. 여자의 편지, 'CONGRATULATIONS'를 보고 있는 남자. 바라보는 남자의 평온한 시선. 비록 짧은 단어지만 많은 감정을 읽을 수 있다. 한동안 보던 남자, 무슨 생각에선지 오리배 안 구석,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곳에서 뭔가를 찾는다. 남자가 집어 드는 건 다름 아닌 @휴대 전화. 목소리를 가다듬어 보는 남자. 폴더를 열고 잠시 후.

남자: 헬로?……. 하우 아 유?……. 파인 생큐, 앤 유? 파인 생큐! 음 …… 웨얼 아 유 프롬?……. 코리안? 리얼리? 오 마이 갓! 미투! 미투! 아임 코리안! 프롬 도봉구……. 예…… 아 …… 앤드, 아 …….

할 얘기가 없다. 아니다, 하고 싶은 얘기는 애초 하나뿐이었다. 서서히 진지해지는 남자의 표정.

남자: 아이…… 아이…… 흠 투 씨 유 …… 후 아 유?

[뒷부분 줄거리]

태풍 때문에 남자가 일군 텃밭과 숙소가 모두 엉망이 되고, 남자는 환경 관리원에게 끌려 나온다. 자신이 도망쳤던 사회에 억지로 돌아온 남자는 진정으로 죽고자 마음먹고 고층 빌딩으로 향한다. 카메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자는 몇 년 만에 대낮의 거리로 뛰쳐나와 남자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어다닌다. 그녀는 버스에 탄 남자를 발견하고 열심히 뛰어가지만 아무래도 역부족이다. 때마침 민방위 사이렌이 울려 버스가 멈추고 여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가 버스 안의 남자와 마주한다.

- 「김 씨 표류기」

6. ㉠~㉣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두 김 씨 사이의 소통을 도와주며 해학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.
- ② ㉡: 남자 김 씨에게는 삶의 목표이자 희망이라면, 여자 김 씨에게는 남자 김 씨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소재이다.
- ③ ㉢: 여자 김 씨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된 공간으로 남자 김 씨의 무인도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.
- ④ ㉣: 여자 김 씨가 남자 김 씨와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개체로 카메라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.
- ⑤ ㉣: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남자 김 씨의 마음이 드러난다.

7. 작품의 제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제목을 통해 도시 문명의 황폐함을 비판한다.
- ② 제목에서 작품 전체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.
- ③ 사람들은 누구나 고립될 수 있으며 이미 고립되어 있음을 표현한다.
- ④ 삶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한다.
- ⑤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익명성과 개인에 대한 무관심을 표현한다.

8. 윗글의 장면별 연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S# 83: 남자 김 씨의 목소리가 여자에게 들리도록 연출함으로써 여자 김 씨가 놀라는 이유가 드러나도록 해야겠어.
- ② S# 84: 페달을 밟는 배달원의 힘듦을 부각함으로써 장면이 다소 해학적으로 보이도록 해야겠어.
- ③ S# 85: 말줄임표에 내재되어 있는 인물들의 심리나 태도를 잘 표현해 달라고 요청해야겠어.
- ④ S# 97: 짜장면의 조리 과정을 클로즈업으로 처리함으로써 남자 김 씨의 간절함이 잘 전해지도록 연출해야겠어.
- ⑤ S# 99: 남자 김 씨에 대한 여자 김 씨의 공감이 잘 드러나도록 서정적인 배경음악을 삽입해야겠어.

9. 윗글에 나타난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여자 김 씨의 모습을 처음 본 배달원은 놀라서 멈칫했다.
- ② 여자 김 씨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.
- ③ 배달원은 밤섬에 짜장면을 시켜 보낸 여자 김 씨에게 화가 나 있다.
- ④ 남자 김 씨가 짜장면을 먹지 않고 돌려보내 여자 김 씨는 화가 나 있다.
- ⑤ 여자 김 씨는 와인병을 이용하여 남자 김 씨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였다.

【10~12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[앞부분 줄거리]

빛 독촉에 시달리던 남자 김 씨는 한강에서 자살 하려다 우연히 살아남아 무인도인 밤섬에서 깨어난다. 밤섬에서 탈출하려던 남자는 버려진 오리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. 어느 날 쓰레기 속에서 짜장 라면 양념 가루를 발견한 남자 김 씨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져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.

한편 여자 김 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낸다.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방 안에서 사진 찍기인데, 우연히 밤섬 쪽을 찍다가 남자 김 씨를 발견한다. 그 후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. 오랜 관찰로 남자의 사정을 알게 된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에게 짜장면을 배달시켜 보낸다.

S# 82 섬(오후)

경계하듯 섬을 두리번거리며 모래 해변 위를 걷는 배달원. 저 앞에 남자의 오리배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간다.

배달원: 저기요? 계세요?

카메라가 배달원의 시선으로 오리배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간다. 이윽고 오리배 뒤에 잔뜩 몸을 숨긴 웅크린 남자의 앙상한 뒷모습이 드러난다. 긴장하는 배달원.

배달원: 짜장면…… 시키신 분?

남자, 조심스럽게 돌아본다. 남자의 행색에 흠칫 놀라는 배달원. 남자도 난데없는 배달원의 등장엔 놀라긴 마찬가지이다. 잠시 서로에게 당황하는 두 사람. 배달원, 머뭇머뭇 조심스럽게 입을 떼는데, 말도 잘 안 나온다.

배달원: 아니…… 어떤 여자가…… 여기로 짜장면…….

배달원, 주뺏대다가 철가방을 내려놓는다. 그 바람에 흠칫하는 남자.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는다. 배

달원, 남자의 눈치를 살피며 철가방 속에서 조심스럽게 짜장면을 꺼내 놓는다.

배달원: 보통 짜장…….

배달원, 이번엔 다른 짜장면을 내려놓는다.

배달원: 간짜장…….

배달원,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을 왠지 해야 할 것 같은 또 하나의 짜장면을 내놓으며

철가방: 삼선 짜장……. 그리고…… (군만두다.) 서비스…….

짜장면들을 바라보는 남자의 표정. 그런 남자의 표정을 잠시 살피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배달원. 다시 검을 씹으며 통명스럽게 말한다.

배달원: 그…… 사실 그래요. 배달이 어디든 가는 게 원칙이긴 한데……. 너무들 하셨다, 이번 일은.

남자: …….

배달원: 식사 많이 하시고요, 그릇은……. (남자의 주변을 훑더니) 가지세요…….

남자: 저기요! 여자…… 어떤, 여자예요? 어떻게 생겼는데요?

배달원: (한숨을 쉬며) 저도 상당히 보고 싶거든요?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잔지?

배달원, 돌아서 간다. 남자,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짜장면들을 바라본다. 남자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린다. 점점 복잡해지는 감정인가 싶은데 갑자기.

남자: 저기요!

S#83 방(오후)

여자의 망원 렌즈 시점.

짜장면을 들고 배달원 앞까지 걸어오는 남자. 짜장면을 내려놓는다. 배달원에게 ‘뭐라 뭐라’ 하는 남자. 그러고는 돌아서 가 버린다. 황당한 배달원.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을 도로 철가방에 담는다.

카메라에서 눈을 떼는 여자. 놀라는 표정.

S#84 한강 한복판(오후)

화를 내며 오리배의 페달을 돌리고 있는 배달원.

배달원: (잔뜩 짜증 난 목소리로) 내가 진짜……
아우, 진짜…….

S#85 현관(오후)

딩동! Ding동! Ding동! 짜증 날 대로 난 배달원. 대답이
없자 현관 앞에 급기야 무작정 짜장면을 내려놓는
다.

배달원: 아, 몰라, 몰라, 몰라! 직접 전해주든지,
먹든지, 버리든지……. (울먹이며) 다리에 알 배었
거든요!

배달원이 씩씩대며 돌아서 가는데, 철컹. 걸쇠에
걸린 현관문이 살짝 열린다.

여자: 저기요!

배달원, 극도의 짜증을 억지로 삼키며 천천히 돌
아서는데, 여자가 안 보인다. 배달원, 천천히 현관을
향해 걸어가면 문 안쪽, 좁은 문틈으로 마치 공포 영
화의 한 장면처럼 드러나는, 애써 얼굴을 돌리고 서
있는 긴 흑발의 여자. 놀라서 멈칫하며 주춤대는 배
달원.

배달원: 왜들, 그러세요……. 들…….

여자: 그 남자……. 다른 말 없었어요? 뭐라고 하
는 거 같던데…… 그죠? 뭐라고 그랬어요?

여자는 잠깐잠깐 배달원과 눈을 마주치지만 애써
시선을 피한다.

배달원: (잠시 본다.) 참, 두 분…… 서로 참, 관심
있으신가 봐요……. 막 애들할라 그러네?

여자: …….

배달원: 전해 달래요.

여자: (동그랗게 떠지는 두 눈)

배달원: (갑자기 정색하며) 자기한테 짜장면
은……. 희망이래요.

여자: (듣는 표정)…….

배달원: (정색한 표정 그대로) 그 남자, 가까이하
지 마세요. 그릇은…… 가지시고.

배달원은 돌아서 간다. 이미 붙어 터진, 남겨진 짜
장면들을 바라보는 여자의 표정.

[중략 부분 줄거리]

남자는 여자가 보낸 짜장면을 돌려보낸 뒤 더욱
열심히 농사를 짓는다. 결국 직접 기른 옥수수와 채
소로 짜장면을 만든다.

S# 97 짜장면을 만들다(오후)

오리배 앞. 말린 옥수수의 알을 하나하나 떼어 내
는 남자. 냄비에 담긴 노란 옥수수 알. 여자가 보내
온 와인병으로 힘차게 옥수수 알을 뺑는 남자. 이제
는 가루가 된 옥수수에 적당량의 물을 붓는다. 다시
한번 와인병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반죽한다. 반죽
한 덩어리는 강통 뚜껑으로 얇게 잘라 낸다. 모닥불
위에 끓고 있는 물. 잘라 낸 면을 넣고 나뭇가지로
천천히 젓는 남자. 모래 깊숙이 파묻은 뭔가를 꺼낸
다. 보면, 포장도 뜯지 않은 단무지다. 오리배 안. 오
랫동안 곱게 보관한 짜장 라면 양념 가루를 꺼내는
남자.

S# 98 짜장면 완성(오후)

모래사장.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을 그릇에 담은
남자. 양념 가루를 들어 조심스럽게 찧는다. 찧는 손
길이 가볍게 떨린다. 툭 툭 툭 양념 가루의 마지막까
지 남김없이 털어 낸다. 잘 익은 노란 면 위에 뿌려
지는 검은 양념 가루. 나무젓가락을 꺼내 쓱 쓱 면과
양념 가루를 비비는 남자. 금세 시커멓게 변하는 면
발. 마침내 어느 정도 비벼진 면을 잠시 바라보는 남
자. 남자의 표정은 설명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하
다. 작게 벌린 입에서 흘러나오는 남자의 호흡이 가
늘게 떨린다. 드디어 완성된 남자만의 짜장면을 한
젓가락 들어 입으로 가져간다. 후루룩 입 속으로 빨

2024
고2 문학
미래엔

2024 고2 문학 미래엔 | 5(1)(2) 김 씨 표류기 수능형 기출 문제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【1~2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[앞부분 줄거리]

빛 독촉에 시달리던 남자 김 씨는 한강에서 자살 하려다 우연히 살아남아 무인도인 밤섬에서 깨어난다. 밤섬에서 탈출하려던 남자는 버려진 오리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. 어느 날 쓰레기 속에서 짜장 라면 양념 가루를 발견한 남자 김 씨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져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.

한편 여자 김 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낸다.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방 안에서 사진 찍기인데, 우연히 밤섬 쪽을 찍다가 남자 김 씨를 발견한다. 그 후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. 오랜 관찰로 남자의 사정을 알게 된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에게 짜장면을 배달시켜 보낸다.

S# 82 섬(오후)

경계하듯 섬을 두리번거리며 모래 해변 위를 걷는 배달원. 저 앞에 남자의 오리배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간다.

배달원: 저기요? 계세요?

카메라가 배달원의 시선으로 오리배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간다. 이윽고 오리배 뒤에 잔뜩 몸을 숨긴 웅크린 남자의 앙상한 뒷모습이 드러난다. 긴장하는 배달원.

배달원: 짜장면…… 시키신 분?

남자, 조심스럽게 돌아본다. 남자의 행색에 흠칫 놀라는 배달원. 남자도 난데없는 배달원의 등장엔 놀라긴 마찬가지이다. 잠시 서로에게 당황하는 두 사람. 배달원, 머뭇머뭇 조심스럽게 입을 떼는데, 말도 잘 안 나온다.

배달원: 아니…… 어떤 여자가…… 여기로 짜장면…….

배달원, 주뺏대다가 철가방을 내려놓는다. 그 바람에 흠칫하는 남자.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는다. 배달원, 남자의 눈치를 살피며 철가방 속에서 조심스럽게 짜장면을 꺼내 놓는다.

배달원: 보통 짜장…….

배달원, 이번엔 다른 짜장면을 내려놓는다.

배달원: 간짜장…….

배달원,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을 웬지 해야 할 것 같은 또 하나의 짜장면을 내놓으며

철가방: 삼선 짜장……. 그리고…… (군만두다.) 서비스…….

짜장면들을 바라보는 남자의 표정. 그런 남자의 표정을 잠시 살피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배달원. 다시 껌을 씹으며 투명스럽게 말한다.

배달원: 그…… 사실 그래요. 배달이 어디든 가는 게 원칙이긴 한데……. 너무들 하셨다, 이번 일은.

남자: …….

배달원: 식사 많이 하시고요, 그릇은……. (남자의 주변을 훑더니) 가지세요…….

남자: 저기요! 여자…… 어떤, 여자예요? 어떻게 생겼는데요?

배달원: (한숨을 쉬며) 저도 상당히 보고 싶거든요?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잔지?

배달원, 돌아서 간다. 남자,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짜장면들을 바라본다. 남자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린다. 점점 복잡해지는 감정인가 싶은데 갑자기.

남자: 저기요!

S#83 방(오후)

여자의 망원 렌즈 시점.

짜장면을 들고 배달원 앞까지 걸어오는 남자. 짜장면을 내려놓는다. 배달원에게 '뭐라 뭐라' 하는 남자. 그러고는 돌아서 가 버린다. 황당한 배달원.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을 도로 철가방에 담는다.

카메라에서 눈을 떴는 여자. 놀라는 표정. (중략)

S# 99 방 (오후)

여자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나지막히 말한다.

여자: (미소를 지으며) 콩그래츰레이션스…… .

남자의 사진들로 도배된 벽면. 방금 인쇄한 남자의 사진을 붙이는 여자. 보면, 짜장면을 한가득 입에 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자의 얼굴. 바라보는 여자의 눈가도 투명하게 축축하다. 천천히 손을 뺀 사진 속 남자의 눈물을 쓱 닦아 주는 여자. 여자의 눈에서 한 줄 눈물이 흐른다.

S# 100 불박이장 안(밤)

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는 여자. 몸이 갑자기 커졌을 리도 없는데. 오늘따라 관갈이 비좁게 느껴지는 불박이장.

S# 101 방 안(밤)

달빛이 드리운 한밤의 방 안. 드르륵 조용히 미닫이문을 열고 나오는 여자. 방 한복판 맨발로 선 여자. 쓰레기들을 한쪽으로 대충 밀치고 자리를 잡고는 천천히 몸을 눕힌다. 부드럽게 하늘거리는 커튼. 창가를 바라보던 여자. 시선이 어느새 평온하게 감긴다.

S# 102 오리배 안(오후)

그동안 받은 와인병들이 줄지어 서 있는 오리배 안. 여자의 편지, 'CONGRATULATIONS'를 보고 있는 남자. 바라보는 남자의 평온한 시선. 비록 짧은 단어지만 많은 감정을 읽을 수 있다. 한동안 보던 남자, 무슨 생각에선지 오리배 안 구석,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곳에서 뭔가를 찾는다. 남자가 집어 드는 건

다름 아닌 휴대 전화. 목소리를 가다듬어 보는 남자. 폴더를 열고 잠시 후.

남자: 헬로?……. 하우 아 유?……. 파인 생큐, 앤 유? 파인 생큐! 음…… 웨얼 아 유 프롬?……. 코리안? 리얼리? 오 마이 갓! 미투! 미투! 아임 코리안! 프롬 도봉구……. 예…… 아…… 앤드, 아…….

할 얘기가 없다. 아니다, 하고 싶은 얘기는 애초 하나뿐이었다. 서서히 진지해지는 남자의 표정.

남자: 아이…… 아이…… 흠 투 씨 유……. 후 아 유?

[뒷부분 줄거리]

태풍 때문에 남자가 일군 텃밭과 숙소가 모두 엉망이 되고, 남자는 환경 관리원에게 끌려 나온다. 자신이 도망쳤던 사회에 억지로 돌아온 남자는 진정으로 죽고자 마음먹고 고층 빌딩으로 향한다. 카메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자는 몇 년 만에 대낮의 거리로 뛰쳐나와 남자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어다닌다. 그녀는 버스에 탄 남자를 발견하고 열심히 뛰어가지만 아무래도 역부족이다. 때마침 민방위 사이렌이 울려 버스가 멈추고 여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가 버스 안의 남자와 마주한다.

- 「김 씨 표류기」

1.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시로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바람이다.
- ②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.
- ③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
- ④ 양편에서 돌이 날아왔다.
- 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. 그 섬에 가고 싶다.

2. 밑줄과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가장 유사한 것은?

- ① 가을 햇볕 공기에 / 익은 벼에 / 눈부신 것 천지인데 / 그런데 / 아, 들판이 적막하다…… / 메뚜기가 없다 // 오, 이 불길한 고요 /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나니……
- ②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/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/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/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/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//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/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/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/ 바람과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/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
- ③ 대숲으로 간다 / 대숲으로 간다 / 한사코 성근 대숲으로 간다 // 자욱한 밤안개에 벌레 소리 젖어 흐르고 / 벌레 소리에 푸른 달빛이 배어 흐르고 // 대숲은 좋더라 / 성글어 좋더라 / 한사코 서러워 대숲은 좋더라 // 꽃가루 날리듯 흥건히 드는 달빛에 / 기척 없이 서서 나도 대같이 살거나
- ④ 구름이 모여 골짜기 골짜기를 구름이 흘러 / 백 년이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/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, / 오랑캐꽃, /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/ 두 팔로 햇빛을 막아 줄게 / 울어 보렴 목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꽃
- ⑤ 이윽고 두 개의 밤이 오면 / 나는 한 마리 풍뎅이가 됩니다 / 그리곤 당신들의 유리 창문에 달라붙었다가 / 그 창문을 열고 / 들어가려 합니다 / 창문을 열면 창문, 다시 열면 / 창문, 창문, 창문…… / 창문 // 밤새도록 창문을 여닫지만 / 창문만 있고 방 한 칸 없는 사람들이 / 산 아래 계곡엔 가득 잠들어 있습니다 // 밤새도록 닦아도 닦이지 않는 창문, /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/ 창문,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지는 / 큰골의 잠, 나는 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. / 저녁엔 해가 뜨고 / 아침엔 해가 지는 곳, // 그 높은 곳에서 나는 당신들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

[3~8] 다음 글과 <보기>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㉠구자명 씨
 일곱 달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
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
 아침 햇살 속에서 줄기 시작한다
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
 ㉡경적 소리에 아랑곳없이
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

㉢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
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
 부처님처럼 즐고 있는 구자명 씨
 그래 저 십 분은
 간밤 아기에겐 젖 물린 시간이고
 또 저 십 분은
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
 그래그래 저 십 분은
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

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
 집 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
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
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
 여자가 받쳐 든 한 식구의 안식이
 아무도 모르게
 ㉣죽음의 잠을 향하여
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

- 「우리 동네 구자명 씨」

<보기>

(가)
 고향집 앞 ㉤느티나무가
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다
 그때까지는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이
 문득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
 나는 잠시 의아해하기는 했으나
 내가 다 커서거니 여기면서
 이게 다 세상 사는 이치라고 생각했다.

오랜 세월이 지나 고향엘 갔더니
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져 있다

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이내 깨달았지만
내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것을
나는 서러워하지 않았다.

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눈에
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
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
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.
- 「다시 느티나무가」

(나)
믿을 수 없다,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
람 같은 생물이란 것을.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
㉠시멘트와 살충제 속에서만 살면서도 저렇게
비대해질 수 있단 말인가. 살덩이를 녹이는 살충
제를 어떻게 가는 혈관으로 흘러보내며 딱딱하
고 거친 시멘트를 똥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.
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, 쇠덩이의 근육에서나 보
이는 저 고감도의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서는.

사람들이 최초로 시멘트를 만들어 집을 짓고
살기 전, 많은 벌레들을 씨까지 일시에 죽이는
독약을 만들어 뿌리기 전, 저것들은 어디에 살
고 있었을까. 흙과 나무, 내와 강, 그 어디에 숨
어서 흙이 시멘트가 되고 다시 집이 되기를, 물
이 살충제가 되고 다시 먹이가 되기를 기다리
고 있었을까. 빙하기, 그 세월의 두꺼운 얼음
속 어디에 수만 년 썩지 않을 ㉡금속의 씨를 감
추어 가지고 있었을까.

로봇처럼, 정말로 철판을 온몸에 두른 벌레들
이 나올지 몰라. 금속과 금속 사이를 뚫고 들어
가 살면서 철판을 왕성하게 소화시키고 수억
톤의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면서 불쑥불쑥 자
라는 잘 진화된 신형 바퀴벌레가 나올지 몰라.
보이지 않는 빙하기, 그 두껍고 차가운 강철의
살결 속에 씨를 감추어 둔 채 때가 이르기를 기
다리고 있을지 몰라. 아직은 암회색 스모그가
그래도 맑고 희고, 폐수가 너무 깨끗한 까닭에
숨을 쉴 수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뜬 채
잠들어 있는지 몰라.

- 「바퀴벌레는 진화 중」

(다)
한국에 온 지 이태가 되어서야
자기 이름을 겨우 쓸 수 있는 ㉢프엉 씨

어디에서 왔냐고 물었더니
호찌민, 버스, 여덟 시간, 까미우, 더워

공부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
㉣읽을 수 있는 단어는 열 개 남짓
하지만 모르는 게 없는 ㉤생선 이름들

오늘은 수술한 남편 대신 혼자서
생선 장사를 거뜬히 해냈다고

손을 씻어도 비린내는 희미하게 퍼지고
프엉 씨는 발개진 얼굴로 또 미안해 한다

가만있자, 프엉은
㉥하노이의 오월을 붉게 물들이는 꽃 이름이 아닌가

종일 고단했는지 붉은 꽃이 깜박

때마침 ㉦함박눈이 내려서
딸 이름 설화가 바로 저 눈꽃이라고 일러 준다

방 안에 붉은 꽃, 흰 꽃
두 송이 시들지 않는 꽃이 활짝

- 「붉은 꽃, 흰 꽃」

3. 윗글과 (가)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시어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.
- ② 수미상관의 구조로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.
- ③ 감각적 이미지로 그리움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.
- ④ 계절의 흐름에 따라 외부 풍경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.
- ⑤ 산문적 진술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.

2024
고2 문학
미래엔

2024 고2 문학 미래엔 | 5(1)(2) 김 씨 표류기 서술형 기출 문제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직전 보강 유형

<김 씨 표류기>에 활용된 소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. 특히 ‘짜장면’과 ‘휴대 전화’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. 작품의 주제를 중심으로 작품에 활용된 소재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[1~6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[앞부분 줄거리]

빛 독촉에 시달리던 남자 김 씨는 한강에서 자살하려다 우연히 살아남아 무인도인 밤섬에서 깨어난다. 밤섬에서 탈출하려던 남자는 버려진 오리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. 어느 날 쓰레기 속에서 짜장 라면 양념 가루를 발견한 남자 김 씨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져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.

한편 여자 김 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낸다.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방 안에서 사진 찍기인데, 우연히 밤섬 쪽을 찍다가 남자 김 씨를 발견한다. 그 후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. 오랜 관찰로 남자의 사정을 알게 된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에게 짜장면을 배달시켜 보낸다.

S# 82 섬(오후)

경계하듯 섬을 두리번거리며 모래 해변 위를 걷는 배달원. 저 앞에 남자의 오리배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간다.

배달원: 저가요? 계세요?

카메라가 배달원의 시선으로 오리배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간다. 이윽고 오리배 뒤에 잔뜩 몸을 숨긴 웅크린 남자의 앙상한 뒷모습이 드러난다. 긴장하는 배달원.

배달원: 짜장면…… 시키신 분?

남자, 조심스럽게 돌아본다. 남자의 행색에 흠칫 놀라는 배달원. 남자도 난데없는 배달원의 등장엔 놀라긴 마찬가지이다. 잠시 서로에게 당황하는 두 사람. 배달원, 머뭇머뭇 조심스럽게 입을 떼는데, 말도 잘 안 나온다.

배달원: 아니…… 어떤 여자가…… 여기로 짜장면…….

배달원, 주뺏대다가 철가방을 내려놓는다. 그 바람에 흠칫하는 남자.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는다. 배달원, 남자의 눈치를 살피며 철가방 속에서 조심스럽게 짜장면을 꺼내 놓는다.

배달원: 보통 짜장…….

배달원, 이번엔 다른 짜장면을 내려놓는다.

배달원: 간짜장…….

배달원,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을 웬지 해야 할 것 같은 또 하나의 짜장면을 내놓으며

철가방: 삼선 짜장……. 그리고…… (군만두다.) 서비스…….

짜장면들을 바라보는 남자의 표정. 그런 남자의 표정을 잠시 살피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배달원. 다시 껌을 씹으며 통명스럽게 말한다.

배달원: 그…… 사실 그래요. 배달이 어디든 가는 게 원칙이긴 한데……. 너무들 하셨다, 이번 일은.

남자: …….

배달원: 식사 많이 하시고요, 그릇은……. (남자의 주변을 훑더니) 가지세요…….

남자: 저기요! 여자…… 어떤, 여자예요? 어떻게 생겼는데요?

배달원: (한숨을 쉬며) 저도 상당히 보고 싶거든요?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잔지?

배달원, 돌아서 간다. 남자,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짜장면들을 바라본다. 남자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린다. 점점 복잡해지는 감정인가 싶은데 갑자기.

남자: 저기요! (중략)

S#85 현관(오후)

딩동! Ding! Ding! Ding! 짜증 날 대로 난 배달원. 대답이 없자 현관 앞에 급기야 무작정 짜장면을 내려놓는다.

배달원: 아, 몰라, 몰라, 몰라! 직접 전해주든지, 먹든지, 버리든지……. (울먹이며) 다리에 알 배었거든요!

배달원이 씩씩대며 돌아서 가는데, 철컹. 걸쇠에 걸린 현관문이 살짝 열린다.

여자: 저기요!

배달원, 극도의 짜증을 억지로 삼키며 천천히 돌아서는데, 여자가 안 보인다. 배달원, 천천히 현관을 향해 걸어가면 문 안쪽, 좁은 문틈으로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러나는, 애써 얼굴을 돌리고 서 있는 긴 흑발의 여자. 놀라서 멈칫하며 주춤대는 배달원.

배달원: 왜들, 그러세요……. 들…….

여자: 그 남자……. 다른 말 없었어요? 뭐라고 하는 거 같던데…… 그죠? 뭐라고 그랬어요?

여자는 잠깐잠깐 배달원과 눈을 마주치지만 애써 시선을 피한다.

배달원: (잠시 본다.) 참, 두 분…… 서로 참, 관심 있으신가요……. 막 애투할라 그러네?

여자: …….

배달원: 전해 달래요.

여자: (동그랗게 떠지는 두 눈)

배달원: (갑자기 정색하며) 자기한테 짜장면은……. 희망이래요.

여자: (듣는 표정)…….

배달원: (정색한 표정 그대로) 그 남자, 가까이하지 마세요. 그릇은…… 가지시고.

배달원은 돌아서 간다. 이미 붙어 터진, 남겨진 짜장면들을 바라보는 여자의 표정.

[중략 부분 줄거리]

남자는 여자가 보낸 짜장면을 돌려보낸 뒤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. 결국 직접 기른 옥수수와 채소로 짜장면을 만든다.

S# 97 짜장면을 만들다(오후)

오리배 앞. 말린 옥수수의 알을 하나하나 떼어 내는 남자. 냄비에 담긴 노란 옥수수 알. 여자가 보내온 와인병으로 힘차게 옥수수 알을 뺏는 남자. 이제는 가루가 된 옥수수에 적당량의 물을 붓는다. 다시 한번 와인병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반죽한다. 반죽한 덩어리는 강통 뚜껑으로 얇게 잘라 낸다. 모닥불 위에 끓고 있는 물. 잘라 낸 면을 넣고 나뭇가지로 천천히 젓는 남자. 모래 깊숙이 파묻은 뭔가를 꺼낸다. 보면, 포장도 뜯지 않은 단무지다. 오리배 안. 오랫동안 곱게 보관한 짜장 라면 양념 가루를 꺼내는 남자. (중략)

S# 99 방 (오후)

여자는 @무언가를 바라보며 나지막히 말한다.

여자: (미소를 지으며) 콩그래출레이션스…… .

남자의 사진들로 도배된 벽면. 방금 인쇄한 남자의 사진을 붙이는 여자. 보면, 짜장면을 한가득 입에 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자의 얼굴. 바라보는 여

자의 눈가도 투명하게 촉촉하다. 천천히 손을 뺀어 사진 속 남자의 눈물을 싹 닦아 주는 여자. 여자의 눈에서 한 줄 눈물이 흐른다. (중략)

S# 102 오리배 안(오후)

그동안 받은 와인병들이 줄지어 서 있는 오리배 안. 여자의 편지, 'CONGRATULATIONS'를 보고 있는 남자. 바라보는 남자의 평온한 시선. 비록 짧은 단어지만 많은 감정을 읽을 수 있다. 한동안 보던 남자, 무슨 생각에선지 오리배 안 구석,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곳에서 뭔가를 찾는다. 남자가 집어 드는 건 다름 아닌 휴대 전화. 목소리를 가다듬어 보는 남자. 폴더를 열고 잠시 후.

남자: 헬로?..... 하우 아 유?..... 파인 생큐, 앤 유? 파인 생큐! 음 웨얼 아 유 프롬?..... 코리안? 리얼리? 오 마이 갓! 미투! 미투! 아임 코리안! 프롬 도봉구..... 예..... 아 앤드, 아

할 얘기가 없다. 아니다, 하고 싶은 얘기는 애초 하나뿐이었다. 서서히 진지해지는 남자의 표정.

남자: 아이..... 아이..... 흠 투 씨 유 후 아 유?

[뒷부분 줄거리]

태풍 때문에 남자가 일군 텃밭과 숙소가 모두 엉망이 되고, 남자는 환경 관리원에게 끌려 나온다. 자신이 도망쳤던 사회에 억지로 돌아온 남자는 진정으로 죽고자 마음먹고 고층 빌딩으로 향한다. 카메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자는 몇 년 만에 대낮의 거리로 뛰쳐나와 남자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어 다닌다. 그녀는 버스에 탄 남자를 발견하고 열심히 뛰어가지만 아무래도 역부족이다. 때마침 민방위 사이렌이 울려 버스가 멈추고 여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가 버스 안의 남자와 마주한다.

- 「김 씨 표류기」

1. 윗글에서 여자 김 씨가 남자 김 씨에게 보이는 관심을 의미하며, 남자 김 씨의 삶의 목표가 되는 소재가 무엇인지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.

2. 남자 김 씨가 여자 김 씨에게 관심이 있고, 여자 김 씨와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남자 김 씨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소재가 무엇인지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.

3. 남자 김 씨가 밤섬을 떠나는 계기가 되는 소재가 무엇인지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.

4. '여자의 편지'와 '휴대 전화'가 갖는 의미를 주체를 포함하여 각각 쓰시오.

여자의 편지:

휴대 전화:

5. @가 가리키는 것을 윗글에서 찾아 4어절로 쓰시오.

신유형

<김 씨 표류기>의 인물의 정서 및 역할에 대해 묻는 문제, 학습 활동에 제시된 <우리 동네 구자명 씨>의 시어 및 시구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, <우리 동네 구자명 씨>가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시적 대상과 관련지어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. <김 씨 표류기>에서 각 인물의 역할 및 정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, <우리 동네 구자명 씨>의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의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, 해당 작품이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[6~7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[앞부분 줄거리]

빛 독촉에 시달리던 남자 김 씨는 한강에서 자살하려다 우연히 살아남아 무인도인 밤섬에서 깨어난다. 밤섬에서 탈출하려던 남자는 버려진 오리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. 어느 날 쓰레기 속에서 짜장 라면 양념 가루를 발견한 남자 김 씨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져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.

한편 여자 김 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낸다.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방 안에서 사진 찍기인데, 우연히 밤섬 쪽을 찍다가 남자 김 씨를 발견한다. 그 후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. 오랜 관찰로 남자의 사정을 알게 된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에게 짜장면을 배달시켜 보낸다.

배달원: 아니…… 어떤 여자가…… 여기로 짜장면…….

배달원, 주뺏대다가 철가방을 내려놓는다. 그 바람에 흠칫하는 남자.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는다. 배달원, 남자의 눈치를 살피며 철가방 속에서 조심스럽게 짜장면을 꺼내 놓는다.

배달원: 보통 짜장…….

배달원, 이번엔 다른 짜장면을 내려놓는다.

배달원: 간짜장…….

배달원,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설명을 웬지 해야 할 것 같은 또 하나의 짜장면을 내놓으며

철가방: 삼선 짜장……. 그리고…… (군만두다.) 서비스…….

짜장면들을 바라보는 남자의 표정. 그런 남자의 표정을 잠시 살피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배달원. 다시 껌을 씹으며 통명스럽게 말한다.

배달원: 그…… 사실 그래요. 배달이 어디든 가는 게 원칙이긴 한데……. 너무들 하셨다, 이번 일은.

남자: …….

배달원: 식사 많이 하시고요, 그릇은……. (남자의 주변을 훑더니) 가지세요…….

남자: 저기요! 여자…… 어떤, 여자예요? 어떻게 생겼는데요?

배달원: (한숨을 쉬며) 저도 상당히 보고 싶거든요?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잔지?

배달원, 돌아서 간다. 남자,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짜장면들을 바라본다. 남자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린다. 점점 복잡해지는 감정인가 싶은데 갑자기.

남자: 저기요!

S#83 방(오후)

여자의 망원 렌즈 시점.

짜장면을 들고 배달원 앞까지 걸어오는 남자. 짜장면을 내려놓는다. 배달원에게 ‘뭐라 뭐라’ 하는 남자. 그러고는 돌아서 가 버린다. 황당한 배달원. 어쩔 수 없이 짜장면을 도로 철가방에 담는다.

카메라에서 눈을 떼는 여자. 놀라는 표정.

S#84 한강 한복판(오후)

화를 내며 오리배의 페달을 돌리고 있는 배달원.

배달원: (잔뜩 짜증 난 목소리로) 내가 진짜……
아우, 진짜…….

S#85 현관(오후)

딩동! Ding! Ding! Ding! 짜증 날 대로 난 배달원. 대답이 없자 현관 앞에 급기야 무작정 짜장면을 내려놓는다.

배달원: 아, 몰라, 몰라, 몰라! 직접 전해주든지, 먹든지, 버리든지……. (울먹이며) 다리에 알 배었거든요!

배달원이 씩씩대며 돌아서 가는데, 철컹. 걸쇠에 걸린 현관문이 살짝 열린다.

여자: 저기요!

배달원, 극도의 짜증을 억지로 삼키며 천천히 돌아서는데, 여자가 안 보인다. 배달원, 천천히 현관을 향해 걸어가면 문 안쪽, 좁은 문틈으로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러나는, 애써 얼굴을 돌리고 서 있는 긴 흑발의 여자. 놀라서 멈칫하며 주춤대는 배달원.

배달원: 왜들, 그러세요……. 들…….

여자: 그 남자……. 다른 말 없었어요? 뭐라고 하는 거 같던데…… 그죠? 뭐라고 그랬어요?

여자는 잠깐잠깐 배달원과 눈을 마주치지만 애써 시선을 피한다.

배달원: (잠시 본다.) 참, 두 분…… 서로 참, 관심 있으신가 봐요……. 막 애투할라 그러네?

여자: …….

배달원: 전해 달래요.

여자: (동그랗게 떠지는 두 눈)

배달원: (갑자기 정색하며) 자기한테 짜장면은……. 희망이래요.

여자: (듣는 표정)…….

배달원: (정색한 표정 그대로) 그 남자, 가까이하지 마세요. 그릇은…… 가지시고.

배달원은 돌아서 간다. 이미 붙어 터진, 남겨진 짜장면들을 바라보는 여자의 표정.

[종락 부분 줄거리]

남자는 여자가 보낸 짜장면을 돌려보낸 뒤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. 결국 직접 기른 옥수수와 채소로 짜장면을 만든다.

S# 99 방 (오후)

여자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나지막히 말한다.

여자: (미소를 지으며) 콩그래출레이션스…… .

남자의 사진들로 도배된 벽면. 방금 인쇄한 남자의 사진을 붙이는 여자. 보면, 짜장면을 한가득 입에 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자의 얼굴. 바라보는 여자의 눈가도 투명하게 촉촉하다. 천천히 손을 뺀어 사진 속 남자의 눈물을 쓱 닦아 주는 여자. 여자의 눈에서 한 줄 ㉠눈물이 흐른다.

S# 100 불박이장 안(밤)

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는 여자. 몸이 갑자기 커졌을 리도 없는데. 오늘따라 관갈이 비좁게 느껴지는 불박이장.

S# 101 방 안(밤)

달빛이 드리운 한밤의 방 안. 드르륵 조용히 미닫이문을 열고 나오는 여자. 방 한복판 맨발로 선 여자. 쓰레기들을 한쪽으로 대충 밀치고 자리를 잡고는 천천히 몸을 눕힌다. 부드럽게 하늘거리는 커튼. 창가를 바라보던 여자. 시선이 어느새 평온하게 감긴다.

S# 102 오리배 안(오후)

그동안 받은 와인병들이 줄지어 서 있는 오리배 안. 여자의 편지, 'CONGRATULATIONS'를 보고 있는 남자. 바라보는 남자의 평온한 시선. 비록 짧은

단어지만 많은 감정을 읽을 수 있다. 한동안 보던 남자, 무슨 생각에선지 오리배 안 구석,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곳에서 뭔가를 찾는다. 남자가 집어 드는 건 다름 아닌 휴대 전화. 목소리를 가다듬어 보는 남자. 폴더를 열고 잠시 후.

남자: 헬로?……. 하우 아 유?……. 파인 생큐, 앤 유? 파인 생큐! 음 …… 웨얼 아 유 프롬?……. 코리안? 리얼리? 오 마이 갓! 미투! 미투! 아임 코리안! 프롬 도봉구……. 예…… 아 …… 앤드, 아 …….

할 얘기가 없다. 아니다, 하고 싶은 얘기는 애초 하나뿐이었다. 서서히 진지해지는 남자의 표정.

남자: 아이…… 아이…… 흠 투 씨 유 …… 후 아 유?

[뒷부분 줄거리]

태풍 때문에 남자가 일군 텃밭과 숙소가 모두 엉망이 되고, 남자는 환경 관리원에게 끌려 나온다. 자신이 도망쳤던 사회에 억지로 돌아온 남자는 진정으로 죽고자 마음먹고 고층 빌딩으로 향한다. 카메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자는 몇 년 만에 대낮의 거리로 뛰쳐나와 남자를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어다닌다. 그녀는 버스에 탄 남자를 발견하고 열심히 뛰어가지만 아무래도 역부족이다. 때마침 민방위 사이렌이 울려 버스가 멈추고 여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가 버스 안의 남자와 마주한다.

- 「김 씨 표류기」

6. ㉠에 담긴 여자의 정서를 <조건>에 맞게 간단히 서술하시오.

<조건>

▪ 아래의 뜻을 지닌 단어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

‘남의 감정, 의견,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는 느낌.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’

7. 뒷글에서 ‘배달원’의 역할 두 가지를 <조건>에 맞게 서술하시오.

<조건>

▪ ‘~한 행동으로 보아 ~ 역할을 하고 ~한 행동으로 보아 ~ 역할을 한다.’의 형식으로 쓸 것

[8~10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
일곱 달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
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
아침 햇살 속에서 즐기 시작한다
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
경적 소리에도 아랑곳없이
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

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
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
부처님처럼 즐고 있는 구자명 씨
그래 저 십 분은
간밤 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이고
또 저 십 분은
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
그래그래 저 십 분은

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
일 거야

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
집 속에 흔들리는 팬지꽃 아픔
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

그러나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
여자가 받쳐 든 한 식구의 안식이
[A] 아무도 모르게
죽음의 잠을 향하여
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

- 「우리 동네 구자명 씨」

정답 및 해설

내신형 기출 문제

1. [정답] ②

여자 김 씨가 ㉠과 같은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.

- ① 방 안에서만 살아가는 여자 김 씨는 세상을 바라보는 통로이기도 한 ㉠을 통해 남자 김 씨를 관찰하고 있다.
- ③ 여자 김 씨는 배달원이 전해 준 ㉡을 통해 짜장면에 대한 남자 김 씨의 의지를 깨닫게 된다.
- ④ 남자 김 씨는 목표로 삼고 노력하던 짜장면을 만들어 먹게 되자 ㉢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삶의 희망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.
- ⑤ ㉢에서는 단절되고 고립된 삶을 답답하게 느끼는 여자 김 씨의 모습이 나타나는데, 이는 여자 김 씨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.

2. [정답] ③

남자 김 씨는 배달된 짜장면을 먹지 않고 돌려보냈다.

- ① 오랜 관찰로 남자 김 씨의 사정을 알게 된 여자 김 씨는 남자 김 씨를 위해 종류별로 짜장면을 주문한 후 그에게 배달시켜 주었다.
- ② 배달원은 오리배를 타고 밤섬까지 짜장면을 배달하였으나, 남자 김 씨가 짜장면을 다시 돌려보내자 오리배를 타고 짜증을 내며 밤섬을 나온다.
- ④ 제대로 이룬 것 없는 힘든 삶을 살아온 남자 김 씨는 자신의 노력으로 짜장면을 만들어 먹게 되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삶의 희망을 갖게 된다.
- ⑤ 남자 김 씨가 탄 버스를 쫓아가던 여자 김 씨는 민방위 사이렌이 울려 버스가 멈추게 되자 버스 안의 남자 김 씨와 마주하게 된다.

3. [정답] ④

여자 김 씨는 자신처럼 고립된 채 살아가는 남자 김 씨를 우연히 만나고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.

- ① 배달원의 말로 미루어 보아 남자 김 씨가 배달원에게 '자기에게 직접 만드는 짜장면은 희망이다.'라

고 이야기하였을 것이며, 작중에서는 이를 '뭐라 뭐라'라고 표현하였다.

- ② 배달원은 그릇을 가지러 오기 힘들었기에 남자 김 씨에게 짜장면 그릇을 가지라고 하였다.
- ③ 태풍 때문에 남자 김 씨가 만든 밤섬에서의 삶의 터전이 엉망이 되었고, 남자 김 씨는 결국 환경 관리원에 의해 밤섬에서 끌려 나오게 되었다.
- ⑤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남자 김 씨는 여자의 'CONGRATULATION'을 보고 여자 김 씨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, 직접 만나기 위해 소통을 시도하지는 않았다.

4. [정답] ③

윗글에서 흔한 성씨로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고립될 수 있으며, 혹은 이미 고립되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, 또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익명성, 개인에 대한 무관심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.

- ① ㉢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무인도로, 남자 김 씨가 우연히 도달하게 된 공간이며, 고립된 채 살아가는 공간이다.
- ② 여자 김 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㉣에서만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데, ㉣에서 거리의 사진을 찍다가 남자 김 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를 관찰하게 된다.
- ④ 남자 김 씨는 스스로 ㉤를 만들어 먹음으로써 삶의 진정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.
- ⑤ 남자 김 씨는 스스로 완성한 짜장면을 먹으며 목표를 이루었다는 감동으로 ㉥를 흘리며 삶의 희망을 갖게 된다.

5. [정답] ④

'표류'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였을 때, 윗글의 제목은 삶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.

- ① '표류'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였을 때, 남자 김 씨가 삶의 의지를 갖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.
- ② 밤섬에 고립된 남자 김 씨가 목표를 갖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, 삶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현대인들과는 다른 모습이다.

③ '표류'의 사전적 의미와 '특정한 공간에 갇혀서 타인을 경계하면서도 서로를 궁금해하'는 현대인의 내면과는 연관이 없다.

⑤ 윗글에서는 목적이나 방향을 잃고 헤매던 인물이 목적과 방향을 찾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.

6. [정답] ④

카메라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하지 않던 여자 김 씨가 남자 김 씨에게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도구이고, @은 여자 김 씨가 남자 김 씨와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개체이므로 두 소재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다.

① 오리배를 타고 짜증을 내며 밤섬까지 짜장면 배달을 하는 ㉠에게서 해학성을 느낄 수 있다. 또한 ㉠은 여자 김 씨가 주문한 짜장면을 남자 김 씨에게 전해 주고, 남자 김 씨가 한 말을 여자 김 씨에게 전달하는데, 이는 두 김 씨 사이의 소통을 돕는 역할에 해당한다.

② 남자 김 씨는 ㉡을 삶의 목표이자 희망으로 삼고 있고, 여자 김 씨가 남자 김 씨에게 보내는 ㉡은 남자 김 씨에 대한 여자 김 씨의 관심을 의미한다.

③ 여자 김 씨는 타인과 교류하지 않고 ㉢에서만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데, 이는 남자 김 씨가 지내는 무인도처럼 '고립된 장소'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.

⑤ 남자 김 씨가 @의 폴더를 열고 '아이…… 아이…… 흠 투 씨 유…… 후 아 유?'라고 말하는 행동에는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남자 김 씨의 마음이 담겨 있다.

7. [정답] ①

작품의 제목과 내용에서 도시 문명의 황폐함을 비판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.

② 작품의 제목에는 주인공 남자 김 씨가 밤섬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작품 전체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.

③ 작품의 제목에는 가장 보편적인 성(姓)인 '김 씨'가 사용되었는데, 이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립될 수 있으며, 혹은 이미 고립되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.

④ '표류'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였을 때, 윗글의

제목은 삶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.

⑤ '김 씨'라는 표현에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익명성, 개인에 대한 무관심함이 담겨 있다.

8. [정답] ①

여자 김 씨가 놀라는 이유는 무인도에서 배달원이 짜장면을 철가방에 도로 담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

② 다리에 알이 배일 정도로 오리배의 페달을 밟는 배달원의 모습이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하므로 적절한 방법이다.

③ 시나리오에서는 배우의 연기에 의해 관객들이 말줄임표에 내재되어 있는 인물들의 심리나 태도를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이다.

④ 짜장면을 만드는 과정은 남자 김 씨의 목표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방법이다.

⑤ 목표를 이룬 남자 김 씨의 심정에 여자 김 씨가 공감하면서 남자 김 씨처럼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므로 적절한 방법이다.

9. [정답] ④

남자 김 씨가 짜장면을 먹지 않고 돌려보냈지만 이 때문에 여자 김 씨가 화를 내는 장면은 윗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.

① 배달원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여자 김 씨의 모습에 놀라 멈칫하며 주춤대었다.

② 여자 김 씨가 배달원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.

③ 배달원은 여자 김 씨의 모습을 보기 전까지 밤섬까지 짜장면 배달을 보낸 여자 김 씨에게 화가 나 씩씩대고 있었다.

⑤ '그동안 받은 와인병들이 줄지어 서 있는 오리배 안. 여자의 편지, 'CONGRATULATIONS'를 보고 있는 남자'라는 구절을 통해 여자 김 씨가 와인병을 이용하여 남자 김 씨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.

10. [정답] ②

두 김 씨는 타인을 경계하면서도 서로를 궁금해하

는 인물들이지만,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 주는 모습은 윗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.

① 배달원은 여자 김 씨가 주문한 짜장면을 남자 김 씨에게 전해 주고, 남자 김 씨가 한 말을 여자 김 씨에게 전달하는데, 이는 두 김 씨 사이의 소통을 돕는 역할에 해당한다.

③ '오늘따라 관갈이 비좁게 느껴지는 불박이장'이라는 구절에서 여자 김 씨가 단절되고 고립된 삶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.

④ 흔한 성씨인 '김 씨'로 두 인물을 지칭한 것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익명성, 개인에 대한 무관심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.

⑤ '표류'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였을 때, 윗글의 제목은 삶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.

11. [정답] ①

윗글은 영화 촬영을 위한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작품으로,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, 카메라 위치,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면 등을 제시한다.

② 윗글에서 장면 번호, 시간과 공간, 배우의 행동 등을 설명하는 등장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.

③ 윗글의 갈래인 시나리오는 희곡에 비해 시간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기에 작가의 다양한 상상력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다.

④ 윗글에서 현대극의 실험적 기법이 나타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.

⑤ 배우들이 관객의 눈앞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표현하는 갈래는 희곡 갈래이다.

12. [정답] ③

남자 김 씨는 처음 본 배달원이 흠칫 놀랄 정도로 야생의 생활로 인해 다듬어지지 않은 행색을 하고 있었고,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만 살아가는 여자 김 씨는 배달원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이와 같은 자신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.

① 윗글은 현대 사회의 익명성, 개인에 대한 무관심, 삶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.

② 윗글에서는 남자 김 씨가 겪은 여러 가지 사건이 나타나며,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두 김 씨의 모습

은 인물과 사회의 갈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.

④ 윗글에서 소도구나 인물의 행동을 과장되어 표현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.

⑤ 윗글에서는 '짜장면'이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두 김 씨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지만, 이와 같은 표현이 현대인의 도덕성 문제를 비판하기 위함은 아니다.

13. [정답] ①

구자명 씨를 부처님에 비유한 것은 구자명 씨가 고단함을 감추고 잠든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이지 구자명 씨의 자비에 대한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다.

② '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', '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', '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'이라는 구절에서 화자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구자명 씨의 고단한 하루를 상상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③ 화자는 '여자가 받쳐 든 한 식구의 안식', '죽음의 잠'이라는 표현을 통해 여성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.

④ 화자는 직장 일과 가사 노동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구자명 씨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.

⑤ '팬지꽃 아픔'과 '안개꽃 멍에'라는 시구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고단한 삶과 아픔,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다.

14. [정답] ④

윗글에서는 잠도 제대로 못 자며 가사 노동을 도맡아 하는 구자명 씨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통해 가사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.

① 윗글에서는 진달래 피고 밤꽃이 흐드러지는 차창 밖의 아름다운 풍경과 버스 안에서 즐기고 있는 구자명 씨를 대비하여 구자명 씨의 고달픔을 나타내고 있다.

② '여자가 받쳐 든 한 식구의 안식', '죽음의 잠'이라는 시구는 여성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의도가 담겨 있다.

③ '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', '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', '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

시간'이라는 구절은 가족을 위해 밤잠을 설치는 구자명 씨의 삶을 추측하는 부분이다.

⑤ 윗글은 '구자명 씨'라는 구체적인 대상에서 한국 사회 여성의 보편적 모습으로 시상을 확대하고 있다.

15. [정답] ③

윗글에서 피곤한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찾으려는 여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.

- ① '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'와 관련 있는 모습이다.
- ② '간밤 아기에게 젖 물린 시간'과 관련 있는 모습이다.
- ④ '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'과 관련 있는 모습이다.
- ⑤ '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즐기 시작'하는 구자명 씨와 관련 있는 모습이다.

수능형 기출 문제

1. [정답] ⑤

윗글에서는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고발하고 있다. ⑤의 작품도 소통이 단절된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온전한 소통과 만남을 소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.

- ① 화자가 23년을 살며 많은 고통과 방황, 시련을 겪었음을 의미하는 구절이다.
- ② 사랑하는 이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 가득 담긴 구절이다.
- ③ 절망 속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하였다는 의미가 담긴 구절이다.
- ④ 흑백논리로 이분화된 사회를 의미하는 구절이다.

2. [정답] ⑤

윗글에서는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고발하고 있다. ⑤의 작품도 사람들과 유리되어 살아가는 화자가 타인과의 소통을 갈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작품이다.

- ① 생태계가 파괴된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.
- ② 시련과 역경 속에서 완성되는 사랑과 삶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.

③ 대처럼 끈게 살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.

④ 일제 강점하에서 억울하고 비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한을 노래하는 작품이다.

3. [정답] ①

윗글에서는 '저 심 분은' '시간이고'의 반복을 통해, (가)에서는 '느티나무가'와 '아름다웠다'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.

- ② 윗글과 (가) 모두 수미상관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.
- ③ 윗글과 (가)에서 그리움의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.
- ④ 윗글과 (가)에서 계절의 흐름에 따른 외부 풍경의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.
- ⑤ 윗글에서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지만 (가)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고, 두 작품에 산문적 진술은 사용되지 않았다.

4. [정답] ③

㉞는 바퀴벌레가 서식하고 있는 공간으로, 현대 물질문명을 상징하는 소재이다.

- ① ㉠에도 아랑곳없이 꾸벅꾸벅 조는 모습에서 구자명 씨의 피곤함을 알 수 있다.
- ② 화자는 ㉢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.
- ④ ㉡는 바퀴벌레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시구이다.
- ⑤ 프영 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선 장사를 하고 있기에 ㉣에 대해 잘 알고 있다.

5. [정답] ②

㉠은 돌봐주어야 할 어린 자식이 있지만 아들인지는 알 수 없고, ㉡은 설화라는 딸이 있지만 장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.

- ① ㉠은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다.
- ③ ㉠은 여의도의 회사로 출근하는 직장인이고, ㉡은 생선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이다.
- ④ ㉠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 여성이고, ㉡은 한국에 온 지 2년이 된 다문화 가정의 여성이다.